

## I. 서론

최근의 세계가 겪고 있는 COVID-19 팬데믹(pandemic)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광범위한 전염병으로 모든 세상을 공포에 몰아 넣고 있다. 2020년 초 처음으로 중국 우환에서 시작되어 집단 감염을 유발한 COVID-19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과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퍼져 나갔다. 2020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세계의 총 확진자는 380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1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시아지역에서 1100만명이 발생하였으며 북미에서 900만명, 남미에서 800만명, 유럽에서 600만명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150만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sup> 가장 피해가 큰 국가는 미국으로 확진자가 81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가 22만명에 달하였다. 2위 국가는 인도는 확진자가 730만명, 확진자가 11만명에 달하였으며, 3위 국가는 브라질로 확진자가 510만명, 사망자가 2만3천명이 나왔으며, 4위 국가는 러시아로 130만명이 확진되었으며 사망자가 2만2천명이 넘어섰다.<sup>2)</sup> 그 외에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의 유럽국가들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등 남미국가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sup> COVID-19로 인하여 많은 나라들이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해외입국자를 차단하였으며, 많은 대도시들이 봉쇄조치를 시행하여 도시 간의 이동을 통제하였다. 많은 나라들이 외출 금지 명령을 발동하였고,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필리핀 등 같은 국가에서는 통행증을 발급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1) 재경일보 2020.10.14., “14일 세계 코로나19 발생현황.”

<http://news.jkn.co.kr/post/825667>(검색일 2020.10.14.)

2) Ibid.

3) 스카이데일리 2020.10.15.,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3872만명 돌파, 사망자 110만명 육박.”

[http://www.skyedaily.com/news/news\\_print.html?mode=print&ID=113822](http://www.skyedaily.com/news/news_print.html?mode=print&ID=113822)(검색일 2020.10.15.)

COVID-19 팬데믹은 한국사회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불특정 다수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커짐으로, 정부는 국가와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통제하고 있다. COVID-19 방역이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음식점의 이용이 제한되고, 학교는 물론 학원 등의 수업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공연장 등의 이용도 통제되었다.

COVID-19 팬데믹은 한국교회에도 큰 숙제를 던져 주었다.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하는 당면한 숙제문제 중 하나는 ‘예배’ 문제였다. COVID-19 방역체계가 격상되면서 정부는 오프라인 예배는 제한하였으며,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독교계는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과연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독교계는 논쟁할 수 밖에 없었고, 온라인 예배가 가능한 교회들도 있었지만 기술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로 온라인 예배가 불가능한 소형교회들도 많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 또 오프라인 예배의 금지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의 재정과 성도수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소형교회들은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

COVID-19의 발생은 기독교선교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선교지의 국경이 봉쇄됨에 따라 선교사들의 출입국은 물론 선교 물자의 왕래가 차단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의료시설이 열악한 선교지에서 본국으로 귀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선교사들 중에는 COVID-19에 감염되어서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2020년에 발생한 COVID-19 팬데믹은 선교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COVID-19 팬데믹을 말세의 징조로 보고 있다.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COVID-19 팬데믹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고 있다.<sup>4)</sup> 그러나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 팬데믹이 오늘날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란 것을 알 수 있다. 성서시대는 물론 초기 기독교시대와 중세시대,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근대와 현대의 교회시대에도 팬데믹은 교회와 기독교선교를 위협하였다. AD 165년 로마의 안토니우스 황제 때 역병이 발생하여 로마와 그리스 그리고 이집트와 소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 때 발생한 사망자 수는 약 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sup> AD 541~542년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비잔틴 제국의 황제로 있던 때 페스트로 보이는 역병으로 인하여 비잔틴 제국과 사산제국 그리고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서 많은 사람이

4) 황을호, 『대유행병과 기독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0), 28-42

5) Ibid., 17-22

죽었는데, 사망자가 2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세 말인 AD 1326~1353년에 발생한 흑사병은 중앙아시아에서 발생하여 유럽으로 전파되었는데,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가서 사망자가 약 7500만 명에서 1억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정도의 숫자는 유럽인구의 30~60%에 해당한다. 흑사병 이전의 세계 인구가 약 4만 5천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흑사병 이후에는 약 3억 5천만 명으로 거의 1억명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14세기 흑사병은 유럽의 종교, 사회, 경제에 큰 영향을 주었다. AD 1852~1860년에 발생한 콜레라는 인도 갠지스 강 유역에서 시작하여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북미 그리고 아프리카로 확산되었다. 이 때 100만 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D 1918~1920년에는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였는데 세계인구의 3분의 1이 감염되었으며, 약 2000~5000만 명이 사망하여 치사율이 10~20%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이즈(AIDS)는 처음에는 1976년 콩고에서 발견되었으나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약 3600만 명의 사망자를 내었으며, 현재도 3100~3500만명이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팬데믹은 인류 역사와 오랫동안 동행하면서 교회의 예배와 기독교선교를 위협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팬데믹이 기독교선교에 있어서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으며, 때로는 기독교에 선교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기독교선교는 지속되었고, 때로는 팬데믹이 선교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팬데믹이 기독교선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해 봄으로써 현재의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기독교선교가 나아가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고자 한다.

## II. 초기 기독교시대의 팬데믹과 기독교선교

초기 기독교 시대는 일반적으로 예수의 지상사역 이후부터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까지의 시기를 지칭한다.<sup>6)</sup> 초기 기독교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으므로 많은 박해를 받았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제국은 신격화된 황제와 로마의 신들(gods)을 숭배할 것을 강요하였다. 로마는 국가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배의 방식 로마와 황제숭배를 강요하였고, 궁극적으로 로마와 황제의 신적 권위를 주장하였다.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 로마제국과 황제의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sup>7)</sup>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숭배를 거부함으로써 여러 가지 경제

6) 김은수, “초기기독교 확장에 대한 선교 역사적 성찰,” 『선교신학』 제38집 (2015): 114.

적 사회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순교를 감수해야 하는 일도 많았다.<sup>8)</sup>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은 로마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부터도 일어났다.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이단종파로 간주하여 회당에서 추방하였다.<sup>9)</sup> 어떤 이들은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례도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박해가 심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급속히 확장되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여 초기 기독교는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되었다. 주후 1세기경에 소수에 불과하던 기독교인들은 주후 3세기말 750만명에 이른다.<sup>10)</sup> 이는 로마제국의 인구를 6000만 명으로 계산했을 때 10%가 넘는 복음화 율을 보여 준다. 초기 기독교는 박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 중에 한 요인이 팬데믹과 관련이 되어 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팬데믹의 유행은 크게 두 차례 있었는데, AD 165년부터 약 15년 동안 지속되었고, AD 249년부터 약 13년간 지속되었다.<sup>11)</sup> 이 당시의 팬데믹은 페스트, 홍역, 천연두 등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첫 번째 팬데믹에서 로마제국의 인구 중 25~35%가 사망하였다고 알려졌으며, 두 번째 팬데믹에서 매일 로마에서 5천명이 죽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 전염병에 걸린 환자를 내 쫓았고, 로마의 이교사제들과 고위층은 도시로부터 도피하기에 급급하였다. 질병에 걸린 노인들은 자녀로부터 버려졌고, 자녀가 질병에 걸리면 부모들은 자녀를 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병든 자가 죽기도 전에 유기되는 일이 허다하였다.<sup>12)</sup>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전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감염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음식을 먹이고 소생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었다. 전염병으로 죽은 환자들도 시신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혀서 장례를 치렀다. 때로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다.<sup>13)</sup> 그들은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다.<sup>14)</sup> 그들은 개인적인 부의 축적을 추구하지 않고 교회공동체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가난한 이웃을 구제 하였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를 도왔다. 이러한 이웃사랑의 실천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로마인들

7) 김의환, 『기독교회사』 (서울: 성광문화사, 1982), 70-72.

8) Richard Bauckham/ 이필찬 역, 『요한계시록신학』 (서울: 한들출판사, 2013), 60-68.

9) 김은수, 『선교역사로 보는 교회사』 (서울: 생명나무, 2015), 60-61.

10) Rodney Stark/ 손현선역, 『기독교의 발흥』 (서울: 좋은씨앗, 2017), 17-33.

11) 이상규, “초대교회 당시의 전염병,” 노영상의 편,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군포: 다함, 2020), 119.

12) Ibid., 122.

13) Eusebius Pamphilus/ 엄성욱 역,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서울: 은성, 2008), 396-398.

14) Ibid.

을 대상으로 행하여 졌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이웃사랑을 통하여 복음의 실체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교회내부에서는 사랑과 봉사로 신앙의 확신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헌신은 기독교 선교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다.<sup>15)</sup>

### III. 종교개혁시대의 팬데믹과 선교

종교개혁시대에는 1511년부터 1570까지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대유행을 하였다. 이시기의 팬데믹은 주로 흑사병(페스트)으로 알려져 있다.<sup>16)</sup> 유럽의 도시에 흑사병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환자들을 버리고 도피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팬데믹의 위협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였다. 루터는 자신이 목회하던 독일의 비텐베르크를 떠나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고, 장례를 치르고, 영혼의 위로자로서 역할을 다하였다.<sup>17)</sup> 루터도 흑사병이 두려웠지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3:16)”라는 말씀을 의지함으로 죽음을 무릅쓰고서 환자를 돌보았다. 루터는 흑사병으로 버려져 죽어가는 환자를 본인의 집에 데려와 돌보기도 하였다. 목숨을 내어 놓는 순교적 정신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것이다. 루터는 흑사병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위생, 전염의 차단, 소독, 정화 같은 방역조치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전염병이 무서워 너무 쉽게 환자를 버리는 것이나 방역조치 없이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모두를 경계하였다.<sup>18)</sup> 칼뱅도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도피하지 않고, 자신이 목회하던 스위스 제네바에서 환자들을 돌보았다.<sup>19)</sup> 병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목회자의 소명을 다했다. 제네바 시와 협력하여 구빈원을 설치하여 의료사역을 하였고, 프랑스에서 구호기금을 유치하여 환자에 대한 의료사역을 위해 노력하였다. 환자들에게 치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 영생의 소망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환자들의 선교에 힘썼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쾰링글리가 과로로 건강이 안 좋아 취리히에서 180Km 떨어진 온천에서 휴향하고 있을 때, 취리히에 흑사병이 발생하여 도시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일이

15) 김은수, 『선교역사로 보는 교회사』, 49-50.

16) 주도홍, “루터와 흑사병,” 노영상의 편,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군포: 다함, 2020), 126-140.

17) Ibid.

18) 황을호, 『대유행병과 기독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49.

19) 안명준, “칼뱅과 흑사병,” 노영상의 편,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군포: 다함, 2020), 151.

발생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취리히를 떠났지만 쯔빙글리는 오히려 취리히로 돌아가 환자들을 돌보았다.<sup>20)</sup> 결국 그도 흑사병에 감염되어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목숨을 내놓고 환자들 곁을 지켰다.<sup>21)</sup> 불링거가 취리히 교회의 목사로 활동하던 시기에 흑사병이 발생하였다. 그는 흑사병으로 고통스럽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으며, 그의 아내와 딸들 그리고 사위들을 잃었다.<sup>22)</sup> 그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신앙적으로 반응하였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치유를 간구하고, 환자들의 심방을 통해 격려하였으며,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설교를 통하여 환자들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위로하였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은 그 당시 개신교 선교에 크게 기여하여서, 흑사병이 끝났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한다.

#### IV. 한국 초기 개신교의 선교와 팬데믹

한국 초기 개신교 선교는 1884년 선교사 알렌이 미국 공사관 의사로 한국에 입국하면서 시작되었다.<sup>23)</sup> 조선 말기에 시작된 초기 기독교 선교는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조선인들은 서구 선교사들의 이질적인 외모 때문에 양이라 부르며 배척하였으며, 서구 기독교 문화가 조선의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생각하여 복음을 거절하였다. 초기 기독교 선교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의 주도로 이루어지는데 한국선교의 특징은 의료와 교육 선교에 있었다.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선교 거점 지역에 미션 스테이션(mission station)을 만들었고, 그 곳에서 교회와 학교 그리고 병원을 건립하여 유기적으로 사역하였다.

그 당시 한국에는 천연두, 장티푸스, 콜레라, 천연두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였다. 한국 사람들은 질병을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무당을 불러 굿을 하였다. 가난한 서민들은 천연두에 걸린 아이들을 서대문 밖에 버렸고, 아직 죽지 않은 아이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면 마을 외곽의 나무에 묶어두어서 가족에게 다가와 병을 옮기지 못하게 하여 죽기만을 기다리기도 하였다. 서양의 선교사들은 교육시설을 세워 근대교육을 하였는데, 초기에는 기생, 첩, 버려진 아이들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여성들이 주로 교육생으로 받아들였다. 그 중에는 천연두에 감염되어 가족들에게 버려진 아이를 선교사들이 치료하여 교육생으로

20) 황을호, 『대유행병과 기독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48.

21) 조용석, “쯔빙글리와 흑사병,” 노영상의 편,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군포: 다함, 2020), 141.

22) 박상봉, “불링거와 취리히 흑사병,” 노영상의 편,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군포: 다함, 2020), 165-178.

23) 김인수,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2), 129-134.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다.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많은 전염병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서양의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sup>24)</sup> 그 후 서구선교사들이 소개한 서양의술은 19세기 한국에서 의학혁명을 가져왔고 한국 근대의술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었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 의한 서구식 교육은 조선의 개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학자들은 이러한 선교사들의 교육사역과 의료사역이 한국의 개신교 선교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 V. 21세기 COVID-19와 선교

20세기 이후에도 팬데믹은 세계적으로 반복되었다. 그럼에도 2020년 COVID-19가 과거의 어떤 독감보다 가장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 동안 인류가 현대첨단의학의 발전을 이루어 내면서 독감을 비롯한 감염성 질환은 인류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으로 생각했으며, 현대에는 치료하기 어려운 암이나 난치병의 극복을 중요 과제로 생각했었기 때문인 것 같다. 학자들은 세계가 COVID-19 이전의 시대와 COVID-19 이후의 시대로 나뉠 것이라고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COVID-19는 국가경제는 물론 세계경제를 흔들었고, 교회에도 큰 어려움을 주었다. 2020년 초 COVID-19는 국가가 주도하는 방역체계 안에서 잘 관리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월을 넘기면서 COVID-19는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국가가 주도하는 COVID-19 방역과 의료체계는 힘없이 무너지는 듯 보였다. 이런 시점에 COVID-19와의 싸움에서 최전선에 섰던 곳이 바로 대구 계명대 동산의료원이었다. 동산의료원은 미국 북장로회에서 파송된 의료선교사 Dr. Woodbrige, Johnson(장인차)이 1899년 세운 대구 '제중원'에서 출발하였다.<sup>25)</sup> Woodbrige 선교사는 대구 약전골목의 작은 초가집에 '미국약방'을 열어 약을 나누어 주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료를 하면서 '제중원'이란 족자를 걸고 대구 경북지역에서 최초로 근대식 의술을 펼쳤으며 의료이외에도 교육, 사회, 경제, 문화에 걸쳐서 근대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sup>26)</sup> 제중원은 나환자의 구제 사업, 천연두 예방접종 등을 통하여 전염병 퇴치사업에 힘썼고,<sup>27)</sup> 대구 경북지역에서 최초로

24) 이재근, “한국 초기 기독교와 전염병,” 노영상의 편,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군포: 다함, 2020), 151.

25) 기창덕, “대구에서의 의학교육,” 『의사학』 제2집 (1993): 142-143.

26)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홈페이지, 의료원소개,

[http://www.dsmc.or.kr/content/01dsmc/01\\_01.php](http://www.dsmc.or.kr/content/01dsmc/01_01.php)(검색일 2020.5.30.)

27) 이정은, “대구 제중원(동산병원)이 근대의료체계 형성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2002), 24-25.

근대 의학교육을 담당하였던 병원이다.<sup>28)</sup> 동산의료원이 된 이후에도 대구 경북지역의 결핵과 콜레라 등 전염병 퇴치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2020년 2월 20일 동산의료원이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이 되어 달라는 대구시의 요청을 받고, 서영성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고민에 빠졌었다.<sup>29)</sup> 그러나 Woodbrige 선교사가 세운 제증원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을 수락하고 22일부터 COVID-19 환자를 진료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동산의료원의 COVID-19와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동산의료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COVID-19 환자가 대구 경북지역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대구 경북지역의 의료시스템은 붕괴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의료진과 의료장비, 그리고 의료용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 이때 기독교의 여러 단체가 일어나 대구를 도왔다. ‘한국누가회’는 전국의 누가들에게 도움을 호소하였다.<sup>30)</sup> 이후 많은 누가들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대구의 동산의료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진료와 물질적 후원에 참여하였다. ‘글로벌케어’도 동산의료원에 부족한 의장비와 의료인을 파견하였으며,<sup>31)</sup> 중증환자 진료로 식사시간도 없는 의료진에게 간식과 생필품등을 공급하고, 생필품 구호키트를 만들어 고통받고 있는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도왔다. 또한 글로벌케어는 ‘STAND TOGETHER’ 캠페인을 통하여 COVID-19로 고통받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사마리안들’은 ‘대구 이웃을 위한 사마리안들’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마스크 십일조 챌린지’를 진행하여 대구 이웃들에게 부족한 마스크를 후원하고, 대구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시락과 생필품을 구입하여 독거노인과 보호시설에 있는 노숙인들을 후원하였다.<sup>32)</sup> 또 전국의 지역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후원하였으며, 전국의 지역 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한 기독교 단체들도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후원에 동참하였다. ‘아프리카미래재단’도 의료시설이 취약한 아프리카의 COVID-19 극복을 지원하였다.<sup>33)</sup> 이런 동산의료원을 비롯한 기독교

28) 기창덕, “대구에서의 의학교육,” 「의사학」 제2집 (1993): 142.

29) 국민일보, 2020.5.15, “코로나 최전선 86일째 사투..거점병원 지정은 하나님의 계획.”  
<http://news.kmib.co.kr/article/print.asp?arcid=0924137934>(검색일 2020.5.30.)

30) 한국누가회(CMF) 소식지, 2020.3.16. “‘코로나19’ 지원을 요청드리며”  
[http://www.kcmf.org/board\\_WtAL39/31035](http://www.kcmf.org/board_WtAL39/31035)(검색일 2020.5.30.)

31) 한국누가회(CMF) 소식지, 2020.4.27. “‘코로나19’ 긴급모금 사용내역보고”  
[http://www.kcmf.org/board\\_WtAL39/31244](http://www.kcmf.org/board_WtAL39/31244)(검색일 2020.5.30.)

글로벌케어 홈페이지, 활동소식

[http://www.globalcare.or.kr/bbs/board.php?bo\\_table=s3\\_2](http://www.globalcare.or.kr/bbs/board.php?bo_table=s3_2)(검색일 2020.5.30.)

32) CGN 투데이 2020.3.12. “대구 위한 사마리안들 ‘마스크십일조’”

<http://news.cgntv.net/player/home.cgn?c=102&v=146392&y=2020&m=03>(검색일 2020.5.30.)



계의 COVID-19 극복을 위한 이웃 사랑의 실천은 국가적인 노력과 함께 결실을 보면서 대구의 COVID-19 팬데믹을 진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COVID-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숨은 노력들은 기독교 선교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 V. 결론

COVID-19로 인하여 한국교회와 선교는 분명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선교역사를 살펴보면 유행했던 팬데믹들이 교회 공동체와 선교에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자발적인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은 지역사회에서 이웃들에게 큰 감동을 선물한다. 또한 그리스도인들 내부적으로는 신앙의 확신과 결속력을 갖게 한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팬데믹이 창궐하였을 때, 생명을 걸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았다. 이러한 이웃사랑은 그리스도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교회와 상관없는 일반인들에게 까지 차별 없이 바쳐진 사랑이었다. 때로 그러한 사랑의 대가는 너무나 컸다. 환자를 돌보던 그리스도인들도 전염병에 감염되어 순교에 이르게 되었다. ‘순교’는 라틴어로 ‘martyrium’인데 헬리어 ‘마르투리온(μαρτυριον)’에서 유래하였다. 마르투쿠리온의 원래 뜻은 ‘증인’이란 의미인데, 따라서 ‘순교’와 ‘증인’은 그 어원이 같다.<sup>34)</sup> 그러므로 죽기까지 이웃을 섬길 때, 그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언’이며 확실한 선교가 되는 것으로, ‘순교’는 ‘복음’ 대한 궁극적 ‘증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팬데믹의 어려움은 오히려 선교를 역동적으로 만들고, 흡입력으로서의 내적요인을 강화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 이제까지 COVID-19 극복을 위하여 바쳤던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그 들의 헌신이 비록 현재는 눈에는 보이지 않을 지라도 차세대의 선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

33) 아프리카미래재단 홈페이지, 코로나19 아프리카 긴급지원  
<https://africaff.modoo.at/?link=f0oj1tx7>(검색일 2020.5.30.)

34) 김은수, 『선교역사로 보는 교회사』, 40.

## 참고문헌

- 기창덕. “대구에서의 의학교육.” 「의사학」 제2집 (1993): 142-158.
- 김은수. 『선교역사로 보는 교회사』. 서울: 생명나무, 2015.
- \_\_\_\_\_. “초기기독교 확장에 대한 선교 역사적 성찰.” 「선교신학」 제38집 (2015): 113-139.
- 김의환. 『기독교회사』. 서울: 성광문화사, 1982.
- 김인수.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2
- 박상봉. “블링거와 취리히 흑사병.” 노영상의 편.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군포: 다함, 2020.
- 안명준. “칼벵과 흑사병.” 노영상의 편.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군포: 다함, 2020.
- 이상규. “초대교회 당시의 전염병.” 노영상의 편.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군포: 다함, 2020.
- 이재근. “한국 초기 기독교와 전염병.” 노영상의 편.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군포: 다함, 2020.
- 이정은, “대구 제증원(동산병원)이 근대의료체계 형성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2002), 24-25.
- 조용석. “쓰빙글리와 흑사병.” 노영상의 편.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군포: 다함, 2020.
- 주도홍. “루터와 흑사병.” 노영상의 편.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군포: 다함, 2020.
- 황을호, 『대유행병과 기독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0
- Bauckham, Richard./ 이필찬 역. 『요한계시록신학』. 서울: 한들출판사, 2013.
- Pamphilus, Eusebius./ 엄성욱 역.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서울: 은성, 2008.
- Stark, Rodney./ 손현선 역. 『기독교의 발흥』. 서울: 좋은씨앗, 2017.
-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홈페이지, 의료원소개,  
[http://www.dsmc.or.kr/content/01dsmc/01\\_01.php](http://www.dsmc.or.kr/content/01dsmc/01_01.php)(검색일 2020.5.30.)
- 국민일보 2020.5.15., “코로나 최전선 86일째 사투..거점병원 지정은 하나님의 계획.”  
<http://news.kmib.co.kr/article/print.asp?arcid=0924137934>(검색일 2020.5.30.)
- 글로벌케어 홈페이지, 활동소식  
[http://www.globalcare.or.kr/bbs/board.php?bo\\_table=s3\\_2](http://www.globalcare.or.kr/bbs/board.php?bo_table=s3_2)(검색일 2020.5.30.)
- 아프리카미래재단 홈페이지, 코로나19 아프리카 긴급지원  
<https://africaff.modoo.at/?link=f0oj1tx7>(검색일 2020.5.30.)
- 재경일보 2020.10.14., “14일 세계 코로나19 발생현황.”  
<http://news.jkn.co.kr/post/825667>(검색일 2020.10.14.)
- 한국누가회(CMF) 소식지 2020.3.16. “‘코로나19’ 지원을 요청드리며”  
[http://www.kcmf.org/board\\_WtAL39/31035](http://www.kcmf.org/board_WtAL39/31035)(검색일 2020.5.30.)
- 한국누가회(CMF) 소식지 2020.4.27. “‘코로나19 긴급모금 사용내역보고”  
[http://www.kcmf.org/board\\_WtAL39/31244](http://www.kcmf.org/board_WtAL39/31244)(검색일 2020.5.30.)
- CGN 투데이 2020.3.12. “대구 위한 사마리안들 ‘마스크십일조”  
<http://news.cgntv.net/player/home.cgn?c=102&v=146392&y=2020&m=03>(검색일 2020.5.30.)

논찬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팬데믹과 기독교선교	발표자	유용옥
		논찬자 (소속)	김연자 (동서대 부교수)

코로나 19 팬데믹은 인류에게 닥친 글로벌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세계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글로벌 위기라고 불릴만큼의 큰 경제적인 혼란과 국가간뿐만 아니라, 국민들간의 정서적 분열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기 기독교 시대, 종교개혁시대를 비롯한 한국 초기 개신교의 선교와 팬데믹의 연관성을 고찰하고 21세기의 COVID-19와 선교의 방향에 대해 연구한 것은 뜻깊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 따르면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은 로마제국 시대부터 여러 차례 인류를 위협하며 존재해 왔으나 COVID-19가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동안 첨단의학의 발달로 암 등의 난치병을 제외한 질환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여겨져 왔는데 방역과 의료체계가 힘없이 무너지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위기감이 더해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팬데믹 상황속에서 초기 기독교인들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상반되는 면이 있는 듯하다. 믿음의 선배들은 전염병의 위협을 무릅쓰고 죽어가는 환자를 돌보고 소외된 약자를 도왔고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기독교 선교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분열을 경험하고 있다. 물론 한국누가회를 비롯한 사마리안들 등 많은 기독교단체들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랑의 실천을 하여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는건 사실이다. 그러나 방역수칙 준수나 비대면 예배 조치에 대한 교회의 반응은 분열된 모습으로 사회에 비춰져 교회가 하나되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선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스럽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분열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사랑과 헌신의 길로 갈 것인가. 우리가 분열된 모습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나아간다면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선교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3:16)”는 말씀을 의지함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봉사와 희생을 감당해 나간다면 한국 선교의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고 코로나바이러스를 상대로 한 승리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라 생각이다.

제37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국립목포대학교
----------------------	---------